



방기민(시카고루터란신학교)

서론: 본문비평 및 번역상 난점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개역개정, 시 120-134편)¹⁾ 중의 한편

* 본 논문은 필자의 미출판 석사 논문(M.T.S.)을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대폭 보완한 것으로, 원래의 논문 제목은 “Psalm 126 and the Collection of Songs of Ascent”로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에서 Nettie F. McCormick Award in Old Testament(2011)를 수상하였다. 연구를 도와주신 분들로 먼저 석사 논문 지도교수님이면서 미국 성서학회(SBL) 연례모임 시편 분과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멜로디 노울스(Melody D. Knowles, 현재는 Virginia Theological Seminary 재직 중), 논문 심사 부심을 맡아주셨던 시어도어 히버트(Theodore Hiebert), 이후 중요한 논평을 제공해 주신 시카고루터란신학교(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의 세 분의 교수님 클라우스-피터 아담(Klaus-Peter Adam), 랠프 클라인(Ralph W. Klein) 및 현 지도교수님이신 에스더 멘(Esther M. Menn), 마지막으로 논평을 통하여 논문을 짜임새 있게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1)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Songs of Ascents에 관한 연구 중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 연구물들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Loren D. Crow, *The Songs of Ascents (Psalms 120-134): Their Place in Israelite History and Religion* (Atlanta: Scholars, 1996); Michael D. Goulder, *The Psalms of the Return: Book V, Psalms 107-15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8); Cuthbert C. Keet, *A Study of the Psalms of Ascents:*

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여섯 절을 가진 짧은 공동체 탄식시로 분류된다. 시편의 공동체적인 성격은 본문에 나타나는 1인칭 복수 동사들을 통해 강하게 드러난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 과거에 있었던 회복을 기억하며 회상한 뒤에, 공동체의 간청(4-6절)이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편 126편에는 와디(간헐하천)를 흘리는 빗물(4절) 및 풍성한 수확(5-6절)에 대한 농부의 기대 등의 풍부한 농경적 이미지가 드러나기도 한다. 눈물과 기쁨의 대조는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소망을 더욱 또렷하게 그려내기 위한 흥미로운 수사학적인 기교이다. 특히 본 시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개역개정, 5-6절)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 - 특히 직장생활이나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이들 - 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던 시편이지만, 시편의 해석자나 번역가에게는 큰 고민거리를 던지는 어려운 시편이기도 하다.²⁾

대표적으로 1절과 4절의 번역에 있어서 본문비평의 중요한 두 자료인 그리스어 본문(OG/LXX)과 히브리어 본문(MT³⁾)이 다르다. 그리스어 본문은 한국에서 가장 넓게 사용되는 개역개정 성경의 본문과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ἐν τῷ ἐπιστρέψαι κύριον τὴν αἰχμαλωσίαν Σιων)로 번역하고 있지만,⁴⁾ 레닌그라드 히브리어 본문에 따른 다수의 현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upon Psalms CXX to CXXXIV (London: the Mitre, 1969); Melody D. Knowles, *Centrality Practiced: Jerusalem in the Religious Practice of Yehud and the Diaspora in the Persian Period* (Leiden: Brill, 2006), 93-102; Matthias Millard, *Die Komposition des Psalters: Ein formgeschichtlicher Ansatz*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94); Klaus Seybold, *Die Wallfahrtspsalmen: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von Psalm 120-13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2) Erhard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1), 339-340.

3) 본래 MT라 함은 Masoretic text(s)의 준말로서 다양한 마소라 전통의 사본들을 포괄하는 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BHS의 본문으로 채택된 레닌그라덴시스 사본을 말한다.

4) BHS 시편 본문비평장치의 편집자인 바트케(Bardtke)는 그리스어 본문과 몇몇 마소라 사본의 독법을 따라 תבואה(포로들)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개역개정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글 성경 번역(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과 다수의 전통적인 혹은 현대적인 서구권 성경 번역(ASV, CEB, Latin Vulgate, Louis Segond Français, Luther Bibel, Reina-Valera 등)은 그리스어 본문의 독법을 따라 시온의 포로들로 번역한다.

대 성경번역(ESV, NRSV, Robert Alter 등)은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 of Zion”(NRSV, 참조: MT- $\text{וְהָיָה בְּשׂוּבוֹ אֶת־שִׁיבַת צִיּוֹן}$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으로 다른 번역을 제시한다.⁵⁾ 두 가지 다른 번역 사이에서 어느 본문 전통이 더욱 오래된 원래의 것이며, 어떠한 본문 전통이 후대에 파생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본문비평 작업이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 져야 하는 연구과제이다.

본문 상의 난점은 이것 만이 아니다. 본문의 동사⁶⁾ 번역에 있어서 학자마다 큰 견해 차이를 보여준다. 본문에 사용된 동사를 살펴보면, 시편 126편의 첫 네 절(1-4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 다양한 형태(접두형 동사, 접미형 동사, 전치사+부정사, 긴 명령형)의 동사가 번갈아가며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동사유형이 지속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시편 126편은 동사의 무시제(non-temporal) 용법에 해당하는 전치사 כִּי +부정사 연계형(infinitive construct)의 형태로 시작하

-
- 5) 사해사본 가운데 발견된 자음본문들(11QPs^a[시126:1-6], 4QPs^e[시126:1-5], 1QPs^a[시126:6])은 전반적으로 레닌그라드 본문의 독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특히 4절, 모음부호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본문의 독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단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Martin G. Abegg, Peter W. Flint, and Eugene Charles Ulrich (eds), *The Dead Sea Scrolls Bible: The Oldest Known Bible*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9), 558-559 참조. 한편 해당 구절을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와 같은 표현으로 번역하는 이 견해의 가장 큰 난점은 “שוב...שיבות” 구문이 주로 재산(property)을 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기원전 8세기 무렵에 기록된 세피르 텍스트(the Sefire treaty texts)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된 조약 문서들이지만, 고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습과 언어의 용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문헌이다. 세피르 텍스트의 한 부분(Sefire Stele III.24-25)에서 탈라임(Tal'ayim) 지방을 ‘신들의 중재’를 통하여 돌려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שיבות...שוב” 구문에서 돌려받는 대상은 탈라임 지역의 “땅”이다. 더 자세한 토의를 위하여 다음 논의를 참조하라. Joseph A. Fitzmyer,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5), 140-141, 160-161; Melody D. Knowles, *Centrality Practiced*, 100-101; *HALOT(Study Edition)*, 1476-1477. 다른 한편, 야훼 즉위시(Enthronement psalms), 바알루 신화(the Ba'alu cycle)가 암시하듯이, 동부 지중해 지역의 건기에서 우기로 계절이 바뀌는 현상을 신들간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했을 고대인들의 사고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1절의 시온의 운명/운(fortunes)을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을, 야훼 하나님께서 계절의 소유권을 되찾아오신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재산을 돌려받는 상황으로 고대 이스라엘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여지가 있다. 더 자세한 토의는 본 논문의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6) 사실 영어 Verb의 번역에 있어 ‘동사’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동혁은 동사 대신 ‘서술사’라는 번역을 제안하고 이에 설득력이 높지만, Verb의 널리 사용되는 한국어 번역이 동사인 까닭에 대중적인 읽기를 위해 동사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제39호 (2016년 10월), 148-159.

여, 1절 하반절에서 전통적인 히브리어 동사 시제(tense) 이론에서 주로 완료(Perfect) 혹은 과거로 이해되는 접미형 동사 הָיִינוּ(하이누/우리는 -이다)가 사용된다. 바로 다음의 2절에서는 전통적인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 이론에서 주로 미완료(Imperfect) 혹은 미래로 이해되는 접두형 동사 יִמְלֵא(이말레/그것은 채워질 것이다)와 יֹאמְרוּ(요르루/그들은 말할 것이다)가 따라온다. 2절 하반절-3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의 말 속에는 다시 두 번의 접미형 동사 הִגְדִּיל(히그딜/그가 -를 크게 하였다)이 나온다. 3절 하반절에서는 후기 히브리어(Late Biblical Hebrew)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הָיָה+능동분사의 형태를 가진 הָיִינוּ שְׂמַחִים(하이누 스마힘/우리는 기쁘다)이 사용된다.⁷⁾ 4절에서는 긴 명령형(qotla) 형태의 동사인 שִׁבְחָה(슈바/(나에게)돌리소서)가 사용된다.⁸⁾ 5절과 6절의 동사들은 접두형 동사 형태를 미완료(imperfect)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원을 위해 사용되는 3인칭 저씨브(jussive)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번역의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본문비평과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편 126편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본문의 동사 번역에 관한 견해들과 시편 126편의 편집적 배경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관해 연구사를 살핀 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및 시편 126편이 초막절 순례 및 계절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시편 126편의 초막절 가을 축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지

7) 3절 하반절의 후기 히브리어 특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학자들은 시편 126편을 포로 후기로 연대측정을 하며 포로기 이전 시기로 연대를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오직 유일한 예외는 다후드(Mitchell Dahood)인데 그는 우기릿시를 바탕으로 다소 급진적인 본문 재구성을 통해 몇몇 고대의 언어 형태를 발견하려 하는데,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시편 126편을 이른 시기의 것으로 간주하려 한다. Mitchell J. Dahood, *Psalms III: 101-150* (AB 17A; Garden City: Doubleday, 1966), 217-218.

8) 슈무엘 파스버그(Steve Fassberg)는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모든 명령형(288개의 긴 명령형과 1700개의 짧은 명령형)을 검토한 결과 성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긴 명령형이 화자에게로 향하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슈무엘 파스버그,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일반 명령형과 긴 명령형”,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히브리어-한국 번역 글모음』 (박미섭 옮김), (서울: 한울출판사, 1999), 86-97. 원제 S. E. Fassberg, “The Lengthened Imperative הִקָּק and the Regular Imperative הִקָּק in Biblical Hebrew”, M. Bar-Asher (Ed.) *Studies in Language II – Hebrew Through the Ages in Memory of Shoshanna Bahat* (Jerusalem: Academy of Hebrew Language, 1997), 71-77(in Hebrew). 이는 필자의 10년 이상 오랜 검토에도 사실에 들어맞는다.

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계절에 관한 기술 및 지중해 지역의 여러 농사력과 관련된 종교 문헌(테메테르 신화 및 바알루 신화)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모든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시편 126편과 동사들을 새롭게 읽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2. 시편 126편 연구사

그동안 시편 126편의 동사 번역 및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시편 120-134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제안되었기에, 먼저 간략히 연구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본문의 동사 번역에 관한 견해들

앞선 본문의 관찰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시편 126편에서 사용되는 동사유형은 통일되지 않고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동사 형태와 배열을 수용언어로 적절하게 번역하기 위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발전시켜 왔다.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전통적인 번역에 따라 1-3절의 모든 동사를 과거 시제로 번역하고, 4절을 탄원으로, 5-6절을 미래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다.⁹⁾ 이 번역의 경우 이미 1절에서 야훼께서 포로들

9) LXX, Vulgate, NAB, NIV, RSV, NRSV, 개역한글, 개역개정 등. 이 유형의 번역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어 번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접두형 동사가 과거 형태로 번역되는 현상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주어질 수 있다. 첫째, 고 안손 레이니(the late Anson F. Rainey)의 엘-아마르나 편지에 나타난 가나안어에 관한 연구 이후 제기된 짧은 형태 접두형 동사가 과거 형태(Preterite)로 사용되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2002년 안손 레이니의 한국 방문과 필자도 수강하였던 '고대히브리어 중급문법'(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 2002년 봄학기) 수업 이후로 한국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참조 Anson F. Rainey, "The Ancient Hebrew Prefix Conjugation in the Light of Amarnah Canaanite", *Hebrew Studies* 27 (1986), 4-19; 유윤중, "엘 아마르나 텍스트에 비추어 본 북서 셈어의 동사 체계-안손 레이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4집 (2003년 4월), 173-195;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년 1월), 67-87; 최명덕, "원문에 대한 수사학적 이해가 없다면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한 사례: 히브리 성서의 시편에서 사용된 접두형 동사의 번역의 경우", 「수사학」 9집 (2008년 9월), 271-298. 둘째, 다른 한편, 우가릿어를 바탕으로 히브리어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인 데니스 파디(Dennis Pardee)는 안손 레이니의 접두형 과거 형태 동사 이론의 대척점에서 비판하면서, 과거 형태로 사용된 짧은 접두형 동사(preterite)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문(poetic texts)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바브(retentive vav/waw) 없이 과거 의미로 사용된 접두형 동사는 시적 예외(허용)으로 이해해야 하며, 예외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문은 히브리어 문법 재구성에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파디는 그의 문법에 대한 조직적인

을 돌려 보내셨다고 혹은 운명을 회복시키셨다고 묘사하지만 4절에서 포로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혹은 운명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함으로써 1절과 4절이 외견상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물론 여러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만족스럽지 않다.

둘째, 첫 번째 번역이 초래하는 1절과 4절의 불일치를 인지한 학자들은 1-3절이 역사적 설명이 아니라 예언적 목소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궁켈(Hermann Gunkel), 올터(Robert Alter) 등의 학자들은 예언적 완료("perfecta prophetica"¹⁰⁾)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1절과 3절에 나타나는 접미형 동사를 설명한다.¹¹⁾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 1-3절의 동사는 모두 미래에 있을 일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다후드(Dahood)는 그의 앵커 바이블 시리즈 시편 주석에서 시편 126편의 모든 동사를 과거 시제로 번역한다. 그리고 그는 시편 126편이 감사시(a thanksgiving song)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 4절의 동사를 재구성한다. 그는 페니키아 언어(Phoenician language)를 바탕으로 본문을 재구성하여 יהוה(슈바/나에게 돌려주소서)가 원래는 יהוה(샤마/그가 돌려주셨다)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4절 상반절을 야훼께서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셨다("Yahweh

이해를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하지 않고 주로 서평으로 학문적인 견해를 표출하기 때문에 출판된 서평, 그의 Intermediate Classical Hebrew 수업(시카고대학 근동학 연구소, 가을과 겨울 쿼터, 2010-2011년) 중에 배포된 미출판 강의안, 질문과 답변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그의 히브리어 동사 형태에 대한 이해는, 특히 레텐티브 바브(retentive vav)에 대해서, John A. Cook,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the Expression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2012)가 잘 반영하고 있다. 종합하면, 레이니와 파디의 설명방식은 다르지만, 접두형 동사가 과거시제로 번역될 수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최근의 히브리어 동사 연구는 시제보다는 양태(aspect and modality)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성경원문연구』 제38호 (2016년 4월), 97-118.

- 10) GKC §106n;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14;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1), Vol. 2, 363; Hans-Joachim Kraus, *Psalms 60-150: A Commentary*, trans. by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1989), 448.
- 11) Hermann Gunkel,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s of Israel* (Mercer Library of Biblical studie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97; Robert Alter, *The Book of Psalm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2007), 447-448.

restored our fortunes”)로 번역한다.¹²⁾ 다후드의 견해는 다소 급진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지만, 달리 보면 시편 126편의 동사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번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견해는 발터 바이어린(Walter Beyerlin)의 입장이다. 그는 1-3절의 모든 동사를 현재 시제로 번역하며, 1절의 אנחנו(하이누/우리는 -이다)를 “We are”(독일어판에서는 “Wir sind”)로 번역한다. 하이누를 현재 시제로 번역한 사례는 구약 성경 내에 여러 군데 있다. 예를 들어 바이어린이 언급하는 것처럼 창세기 42장 9, 11, 31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답꾼이 아니이다”(창 42:31)라고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꿈꾸는 자 같다’는 표현과 함께 이어지는 1-3절의 내용에 대해서 바이어린은 ‘시의 화자가 꿈속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서, 바이어린은 4절을 꿈속의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시운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³⁾ 바이어린의 견해는 설득력이 높지만, 여전히 접두형 동사와 접미형 동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제 하나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한계도 있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시편 126편의 동사들이 보여주는 복잡성이 ‘시편 126편이 일회적인 사건(예컨대, 포로귀환)이나 기도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며

¹⁴⁾ 문자적으로 운명의 회복이라 표현되기도 하는 초막절 우기 회복의 예전을

-
- 12) Dahood, 윗글, 217. 다후드의 견해는 급진적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법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אנחנו는 3인칭 여성단수 접미형 동사지만, 4절의 동사의 행위 주체가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성(Gender)은 남성이 적절하다. 물론 히브리어 *qatal*(원료) 동사의 원시 셈어에서의 형태는 여전히 아랍어와 에티오피아어에 남아있는 것처럼 **qatala*였고 히브리어 이전 시기에 마지막 -a 음가(sound)가 짧아져서 히브리어의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의 원료 형태가 *qatal*이 된 것이므로(Joüon-Muraoka, 132). 다후드의 견해와 같이 시편 126편이 이른 시기에 쓰인 시편이라면 다후드의 재구성설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시편 126편 및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연대는 주로 페르시아 시기로 추정되므로, 다후드의 본문 재구성은 동의하기 어렵다.
 - 13) Walter Beyerlin, *We Are Like Dreamers: Studies in Psalm 126* (Edinburgh: T&T Clark, 1982), 27-28; Walter Beyerlin, “*Wir sind wie Träumende*”: *Studien zum 126. Psalm* (Stuttgarter Bibelstudien 89;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78).
 - 14) 디트리히(Ernst Ludwig Dietrich)는 시편 126편 1절의 שבו שבתו가 반복되는 과거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야훼께서 시운의 운명을 회복시킬때마다...” 참조 Ernst Ludwig Dietrich, *Shuv shevut: Die endzeitliche Wiederherstellung bei den Propheten* (BZAW

위해 집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해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에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중에 어느새 여름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인 가을이 시작되던 계절 변화의 배경에 주목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우기의 회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미래에도 계속될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한 시점만의 사건이 아니다. 초막절 우기 회복의 예전 중에 (1)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예컨대 풍년)와 (2) 현재에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3) 미래에도 계속될 하나님 은혜가 공존하는 특이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세 시점의 긴장 관계(tension)가 시편 126편 동사 구조의 복잡성을 유발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과 이 관점을 활용한 시편 126편의 읽기는 결론부에서 제시된다.

2)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및 시편 126편의 초막절과의 관련성

최근 시편 연구의 동향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연구 분야 중 하나를 꼽는다면 시편의 배열에 어떠한 신학적 목적이 있는지를 찾는 연구(the shape and editing of the Psalter)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동향은 제럴드 윌슨(Gerald Wilson)의 예일대학에서 제출하였던 그의 박사 논문과 연이은 논문들의 출판으로부터 시작되는데,¹⁵⁾ 아직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타나지만, 시편 전체 구조에 혹 최소한 시편 내의 몇몇 모음집에는 특정한 편집 목적이 있다는 것에 다수 학자가 동의하고 있으며,¹⁶⁾ 특히 시편 126편이 속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시편 120-134편)는 그 중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40: Giessen: A. Töpelmann, 1925), 17-18.

15)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Scholars, 1985); Gerald H. Wilson,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5-94.

16) 유윤중, "시편의 최근 연구동향", 「구약논단」 제15권 2호 통권 32집 (2009년 6월), 30-62. 특히 35-46을 보라. 엘레우테리오 루이스(Eleuterio R. Ruiz)의 경우 시편의 정경적 배열은 시편의 첫 번째 주석이라고 주장("A partir de la idea de que la disposición canónica de los salmos es el primer comentario al Salterio..." p.32)하기도 한다. Eleuterio R. Ruiz, "El silencio en el primer libro del salterio (Salmos 1-41): primera parte", *Revista bíblica* 67(2005), 31-83.

있다.¹⁷⁾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시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순례 중에서도 초막절 순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할렐 시편 또는 이집트 할렐이라고 불리며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유월절 예전을 위해 사용되었던¹⁸⁾ 전통적으로 시편 113-118편의 여섯 시편¹⁹⁾이 유월절과 깊은 연관을 가진 것과 흡사하다. 본 논문에서 뒷받침하는 견해와 같이 시편 120-134편을 초막절과 관련한 시편들로 볼 경우,²⁰⁾ 흥미롭게도 시편 가운데 가장 긴 119편 앞뒤로 유월절과 초막절 찬송가 모음집이 배열되는 편집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이 시편 모음집 내의 시편은 대체로 다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대체로 늦은 시기, 특히 포로기 이후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울스(Knowles), 크로(Loren Crow) 및 밀랄트(Millard)는 아비 후르비츠의 후기 성서 히브리어(LBH)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²¹⁾를 바탕으로 하여 몇몇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
- 17) 서구권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연구 목록은 각주 1번을 참조하라. 한국인에 의한 연구 가운데 가장 자세한 연구는 다음을 보라. Sung-Soo Kim, "Reading the Songs of Ascents (Psalms 120-134) in contex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Luther Seminary, 2004); 박동현, 「순례시에 관한 주석적 연구」(문희석 편) (신학총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81).
 - 18) A. Z Idelsohn, *Jewish Liturg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H. Holt and Co, 1932); Ismar Elbogen, *Jewish Liturgy: A Comprehensive Histo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3).
 - 19) 때로는 확장된 형태로 시편 111-118편을 유월절 할렐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Frank-Lothar Hossfeld and Erich Zenger,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Minneapolis: Fortress, 2011), 41. 호스펠트와 쟁거(Hossfeld and Zenger)의 헤르메네이아 시편 주석 중에 할렐루야 시편에 관한 부록(excursus)에서 쟁거는 이집트 할렐을 유월절 할렐(Pesach Halle)로 부르며 111-113편, 115-117편 두 개의 3개 시 묶음(triad)과 118편을 포함시키는데, 114편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편 114편이 할렐루야 혹은 호두(너희는 감사하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그 이유가 추정되는데, 사실 시편 114편은 출애굽 사건을 다룸으로써 이집트 할렐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시편이다.
 - 20) 예를 들어 Michael D. Goulder, ʿwtql: Melody D. Knowles, ʿwtql: Klaus Seybold, ʿwtql을 보라.
 - 21) Avi Hurvitz, *בין לשון ללשון: לתולדות לשון המקרא בימי בית שני*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72), Melody Knowles, ʿwtql, 94로부터 재인용; 이와 유사한 논문이 한글로 번역되었다. 아비 후르비츠,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본질 및 특징",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히브리어-한글 번역 글모음」(박미섭 옮김), (서울: 한울출판사, 1999), 136-155 원제 Avi Hurvitz, "Historical Linguistics and the Hebrew Bible-The Formation and Emergence of Late Biblical Hebrew", M. Bar-Asher (Ed.) *Studies in Language II-Hebrew Through the Ages in Memory of Shoshanna Bahat* (Jerusalem: Academy of Hebrew Language, 1997), 15-28 (in Hebrew); 후르비츠 및 크로스-프리드먼, 로버트슨(David Robertson) 등의 히브

특징을 발견하였다:²²⁾ (1) 철자법상 6세기 무렵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 중간의 '독법의 어머니'(matres lectionis)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דָּבִיד (다비드/다윗, 시 122:5),²³⁾ (2) 관계대명사를 대체하는 불변화사 שֶׁ (쉐/관계대명사, 시 122:3, 4; 123:2; 129:6, 7; 133:2-3)의 사용, (3) 1인칭 단수 인칭대명사 אֲנִי (아니/나, 시 120:7)의 배타적 사용, (4) 아랍어나 페르시아어 차용어의 사용[예를 들어, צָרָתָא (짜라타/환란, 시 120:1)의 끝부분,²⁴⁾ שֵׁנָא (세나/잠, 시 127:2)의 아랍어적 스펠링²⁵⁾,²⁶⁾ (5) 바브 연속법(waw-consecutive)이 점차 사라짐, (6) 정관사가 붙은 명사이거나 고유명사에 사용되는(직접목적어) 전치사 עַל (엇/-을(를))이 정관사 없이 사용됨(시 126:1, 4 등), (7) 앞서 언급된 הָיָה +participle(하야/-이다, 시 122:2; 126:1, 3), (8) 부정사 절대형을 활용한 명령법 형태의 사용이 지양됨,²⁷⁾ (9) 부정적 목적(negative purpose)을 드러내는 지시어(indicator)

리어 유형(typology)에 따른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에 관한 최근의 비평은 다음 글을 참조하라.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사", 「구약논단」 제21권 1호 통권55집 (2015년 3월), 213-243; 방기민, "시편 15편 연구와 성서번역", 「로기아총서」 7권 (KAATS우수논문시리즈: 서울: 한들출판사, 2009년 8월), 7-32;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구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성서마당」 신창간13호 (2007년), 62-71; Angel Sáenz-Badillos,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trans. by J. F. Elwol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특히 앙헬 사엔스-바디요스(Angel Sáenz-Badillos)의 단행본은 스페인 마드리드 학파의 수작으로 개론서로도 유용하다.

- 22) Millard, 윗글; Crow, 윗글, 139-140; Knowles, 윗글, 93-96.
- 23) Frank Moore Cross and David Noel Freedman, *Early Hebrew Orthography: A Study of the Epigraphic Evidence* (American Oriental Series 36;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2), 58-9. 한편 쿠처(Kutscher)는 실로암 비문, 라기스 서신 및 예루살렘의 묘비로부터 독법의 어머니가 6세기 이전에서도 단어 중간에서 사용된 몇몇 사례들을 찾아내어 크로스-프리드먼이 틀렸다고 주장하였다. Edward Yechezkel Kutscher,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Magnes, 1982), 65. 사엔스-바디요스는 크로스-프리드먼과 쿠처의 견해를 종합하여, 몇몇 예외에도 불구하고 크로스-프리스먼의 견해는 대체로 바르다고 지지한다. Angel Sáenz-Badillos, 윗글, 66.
- 24) 이것은 아랍어의 "emphatic state"로 간주된다. Knowles, 윗글, 95.
- 25) *HALOT(study edition)*, 1595-96; Knowles, 윗글, 95.
- 26) 외래 차용어를 통한 연대분석과 관련하여, 서춘령(Choon Leong Seow)은 전도서 연대분석을 하는 중에 히브리어의 외래 차용어에 대한 더 풍부한 목록을 제공해 준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서춘령의 주장 속의 전도서와 같은 페르시아 시대의 모음집으로 추정되는 관계로 그의 논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분석에 도움이 된다. Choon Leong Seow, "Linguistic Evidence and the Dating of Qoheleth", *JBL* 115 (1996): 643-666.
- 27)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유용하다. Seow, 윗글; 후르비츠, 윗글; Sáenz-Badillos, 윗글.

인 לֹא יִשְׁמַח (레마안 로/-하지 않도록)의 사용(시 125:3), (10) 복수 한정된 형태의 הַצְּדִיקִים (하짜디킴/의로운 사람들(집단), 시 125:3), (11) הַתְּשׁוּבָה (핫슬리하/용서, 시 130:4).²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이 보여주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은 이 수집물의 늦은 연대, 예컨대 포로 후기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다른 한편, 크로와 렌즈버그(Rendsburg)의 주장에 따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가운데 몇몇 시편들은 북쪽 지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주로 시편 132편과 133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부 기원 언어들이다.²⁹⁾ 그런데 크로와 렌즈버그의 주장에 다소 문제가 있다. 크로와 렌즈버그가 주장하는 북부 기원 언어 가운데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불변화사 ִּשְׁ가 대표적인데, 이것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춘령의 관찰에 따르면 불변화사 ִּשְׁ는 북부지방에서 기원한 본문들보다도 포로 후기 시대의 문헌에서 더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정확한 연대분석을 위해 언어적인 특성 외에도 신학이나 암시된 컨텍스트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필요한데도, 크로와 렌즈버그의 분석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시편 132편은 강한 다윗-시온 신학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133편에서도 시온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로 묘사되며 시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사마리아와 세겜 인근의 그리스 산이 정치와 종교 중심지였던 북부지방에서 남부의 중심지인 시온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시를 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크로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원래 북부지방에서 유래한 시편 132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한다.³⁰⁾ 이는 시편 132편의 북부지방 설이 가지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가지 가설 중에 하나라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28) Knowles, 윗글, 94-95.

29) Gary Rendsburg, *Linguistic Evidence for the Northern Origin of Selected Psalms* (Atlanta: Scholars, 1990), 87-93. 크로 역시 몇몇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지만, 그는 다른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인정한다. Crow, 윗글, 160-62.

30) Crow, 윗글, 160-62.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포로 후기의 저작이 분명해 보이지만, 포로 후기 중에서도 페르시아 시대의 언어였던 아람어와 페르시아어 차용어의 흔적은 보이는 한편 그리스어의 영향은 찾아보기 힘들고, 몇몇 고어체(archaistic style)와 같이 고대성을 드러내는 요소들(possible indicators of antiquity)일 수 있는 우가릿 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מַעֲתָה וְעַד-עוֹלָם (메아타 베아드 올람/지금부터 영원까지, 시 121:8; 125:2; 131:3; 성서 밖의 용례 중에 Aqhat Epic 19:144; 19:161-162³¹⁾)나 עֲשֵׂה שְׁמִים וְאָרֶץ (오세 사마임 바아레쯔/하늘과 땅을 지으신, 시 121:2; 124:8; 134:3)와 같은 표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포로 후기 혹은 제2차 성전시대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인 페르시아 시기 저작설이 설득력이 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공유하는 두 번째 특징은 크로의 관찰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섯 개의 반복되는 구절(the repeated formulae, RFs), 자이볼트(Seybold)와 비비에르스(H. Viviers)가 발견한 것과 같이 반복되는 주제, 시온, 예루살렘, 성전, 야훼를 향한 조건 없는 신뢰의 분위기 등을 공통으로 가진 것이다. 먼저, 크로가 발견한 여섯 개의 반복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1) עֲשֵׂה שְׁמִים וְאָרֶץ (오세 사마임 바아레쯔/하늘과 땅을 지으신, 시 121:2; 124:8; 134:3), (2) מַעֲתָה וְעַד-עוֹלָם (메아타 베아드 올람/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시 121:8; 125:2; 131:3), (3) יִאֲמַרְנָא יִשְׂרָאֵל (요마르 나 이스라엘/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시 124:1; 129:1), (4) עַל-יִשְׂרָאֵל שְׁלוֹם (shalom 알 이스라엘/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시 125:5; 128:6; 133:3[11QP^{sc}]), (5) יְבָרְכֶךָ הָיְהוָה מִצִּיּוֹן (예바렉카 야훼 미찌온/야훼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시 128:5; 134:3), (6) יַחַל יִשְׂרָאֵל אֶל-יְהוָה (야헬 이스라엘 엘야훼/이스라엘은 야훼를 바라라, 시 130:7; 131:3).³²⁾ 크로의 관찰에 추가로, 자이볼트는 순례시(Wallfahrtspsalmen)에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 모티브가 공통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지적하였고,³³⁾ 비비에르스는 야훼를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의 분위기, 시편 132편을

31) CML, 119; Knowles, 윗글, 96에서 재인용.

32) Crow, 윗글, 131; 137-141.

33) Klaus Seybold, "Die Redaktion der Wallfahrtspsalmen", ZAW 91 (1979), 247-268.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짧다는 것, 반복되는 단어들, 문장구의 유사성 등의 서로 공유된 특징들이 시편 120-134편이 응집성과 통일성을 가진 모음집을 증명한다고 보았다.³⁴⁾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특징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순례와 관련한 노래 모음집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순례 여정은 일 년에 세 차례(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칠칠절)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앤더슨(A. A. Anderson), 미첼(David C. Mitchell), 굴더(Goulder)와 필자의 경우 초막절이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적절한 배경이라고 판단하는데,³⁵⁾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편 126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계절에 대한 암시이다.

3. 시편 126편과 이스라엘 계절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계절은 무척 중요한 것이었다. 봄에 씨를 뿌린 뒤 따뜻한 여름 장마비로 인한 풍부한 강우량 덕분에 곡식이 잘 자란 뒤 가을에 추수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중해 동부의 이스라엘과 레반트 지역(the Levantine region)에서는 상당히 다른 패턴으로 한해 농사가 진행된다.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여름(6-8월)에는 단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곡식 농사를 짓지 못한다.³⁶⁾ 이스라엘에서 곡

34) Hendrik Viviers, "The Coherence of the ma' alôt Psalms (Pss 120-134)", *ZAW* 106 (1994), 275-289, 특히 278-279를 보라.

35) Arnold. A. Anderson, *The Book of Psalms* (London: Oliphants, 1972), 863-866; David Mitchell,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7), 113-114; Michael D. Goulder, "Songs of Ascents and Nehemiah", *JSOT* 75 (1997), 43-58. 특히 미첼은 올라가는 노래 전체가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굴더는 올라가는 노래가 포로들이 본토에 돌아온 뒤, 느헤미야 비망록 속에 그려지는 초막절 중에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로 본다.

36) 덥고 건조한 여름에 말라 죽어버리는 단년생 식물(밀, 보리)과는 달리, 나무와 같은 다년생 식물은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에도 살아남는다.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은 대추야자(타말), 포도 등의 과일을 달고 맛있게 익게 하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여름(카이츠)이라고 부르는 여름과일은 여름 끝자락에 나무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계절적, 농업적 배경은 아모스 8장에 나오는 여름과실 신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모스 8장에서 여

물 농사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9월 하순-10월 상순(히브리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인 티쉬리)에 시작하여 늦은 비가 내리고(4월경, 대략 유월절 전후), 건기가 시작되려는 5-6월경에 추수를 마치는(칠칠절/오순절) 패턴을 보인다.³⁷⁾ 마침 초막절(9월 중순-10월 중순)³⁸⁾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휴식기를 보내고 나서 한 해의 곡식 농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절적인 배경은 시편 126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4절에서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께 운명 또는 유산으로 묘사되는

름과일(카이트)는 꿀(케츠)과 비슷한 소리를 만듦으로 언어유희를 만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언어유희이다. 여름이 끝이라는 말은 가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계절에서 가을의 중요성을 일러주는 중요한 단서로 생각될 수 있다. 이 여름에 거두어지는 과일은 밀, 보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주식이 아니며 부유층을 위한 보조식품 혹은 기호품으로 수출상품이 되었다. 히브리 성서에서 여름과일은 두 가지 상반된 태도로 묘사된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와 이들 아래에서의 삶은 히브리 성서에서 복의 상징과 같다(예: 창 49:11-12, 신 6:11, 8:8, 왕상 4:25, 시 52:8, 128:3, 아 2:13 등). 다른 한편 히브리 성서는 여름과일을 종말과 연결시키기도 할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로버트 쿠틀(Robert Coote)는 그의 아모스서 연구에서 농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경작지에 포도보다는 밀과 보리를 심는 것이 더 유익했지만 지배계급 이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앙 산지 지역의 경작지를 점점 포도원으로 바꾸어간 것이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Robert B. Coote,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1), 33-34. 원래 복의 상징이던 여름과일이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게 된 까닭은 아마도 지배 엘리트 계급이 필수작물인 곡물을 생산하던 경작지를 보조식품 혹은 기호품을 위한 경작지로 바꾸어 하층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후대에 부정적인 의미가 추가된 것이 아닌가 추론한다. 한편 한글 성경에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과실나무에 대한 번역은 재고찰될 필요가 있다. 임미영이 지적 하듯이, 한국의 초기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 속의 나무나 식물의 적당한 번역어를 한국어에서 찾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유사한 나무 열매 이름을 이용하여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올리브 나무=감람나무, 아몬드=살구꽃, 대추야자=종려나무 등. 임미영, 「구약성서시대 문화 이해를 통한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구약논단」 제 24권 제3호 통권 69집 (2018년 9월), 83. 이 논문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어를 사용하되 오늘날 익숙해진 지중해성 기후 작물의 이름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37) Yohanan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by Anson F. Raine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26-27; Nelson Glueck, *Rivers in the Desert: A History of the Negev* (New York: Farrar, Straus and Cudahy, 1959), 92-94.

38) 다른 한편,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가 365일의 태양력이 아닌 355일을 일 년으로 하는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던 까닭에, 근동의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에서는 달력이 실제 계절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윤달을 사용하였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시 아마도 우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윤달을 제정함으로써 달력을 조정할 수 있었다. 특히 김영진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초막절 준수 시기에 한 달의 차이가 있었다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기술(왕상 12:31-33)을 여로보암왕의 윤달선포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데,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각 나라의 윤달선포편자인 왕의 윤달선포 시기가 각각 달라짐으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초막절에 한 달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설득력 있는 견해로 평가된다. 김영진, 「여로보암의 종교 개혁과 윤달 (왕상 12:31-33)」,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80-90.

뭔가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남방(네겟 광야)에 있는 시내와 같이 바꾸어 달라고 한다. 운명을 남방 시내와 같이 바꾸어달라는 간청은 남방 시내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도록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방 광야에 있는 시내, 혹은 와디는 계절에 따라 물이 흐르기도 하고 물을 흘러보내지 않기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여름이 되고 가물면 사라진다. 5절과 6절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초막절의 맥락에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성서 또는 고대의 종교 문헌과 기후 및 계절과의 관련성은 시편 126편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및 지중해 지역의 다양한 종교 문헌들에서 있어서 보편적으로 신은 비를 내리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묘사된다.³⁹⁾ 예를 들어, 그리스의 데메테르 신화(the Greek myth of Demeter)는 계절 변화에 대한 기원론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신화에 따르면 데메테르는 땅이 꽃과 곡식, 과일 등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농경과 관련된 신이다. 그런데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혹은 코레)가 하데스의 속임수로 매년 몇 개월간 지하세계에 머물러야 하게 되고 따라서 데메테르는 이 시기 동안 슬퍼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 이유로 일 년의 몇 달 동안에는 농부들이 농업 활동에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대 유럽과 근동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친 데메테르 신화의 특이점은 지역에 따라 변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역의 기후에 따라 데메테르가 슬퍼하는 시기는 지중해 연안에서의 건조한 여름, 다른 지역에서의 가을, 혹 겨울로 차이를 보여준다.⁴⁰⁾

39) 배희숙은 그의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주술'에 관한 연구에서 엘리야의 가뭄 저주(왕상 17:1-18:40)과 엘리야의 비(왕상 18:41-46)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엘리야의 저주 주술 및 기우제 분문의 메시지는 가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모든 종교적, 주술적 효력은 아훼로 비롯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배희숙,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주술' 유형과 그 기능-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사화'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21권 1호 통권 55집 (2015년 3월), 60-92. 특히 64-69를 보라.

40)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라. 여름을 데메테르의 슬픈 계절로 보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경우: "2.9. Demeter" in Walter Burkert, *Greek Religion: Archaic and Classical*, Trans. by John Raffan (Oxford: Basil Blackwell, 1985), 159-161; F. M. Cornford, "The 'ΑΠΑΡΧΑΙ and the Eleusinian Mysteries",

데메테르 신화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들과 자주 비교연구가 되는 우가릿 문헌의 바알루 신화(Ba'alu cycle, KTU 1.1-1.6=CTA I-VI) 역시 계절과 종교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무어(Johannes de Moor)의 연구는 바알루 신화가 일종의 제의 달력임을 주장하기도 한다.⁴¹⁾ 이 제의 달력은 동부 지중해 지역의 기후 패턴과 관련이 깊다. 고대 우가릿인이 섬겼던 바알루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이요 비를 내리는 신이다. 바알루 신화에 따르면 바알루는 두 번의 전투를 겪는다. 첫 번째 전투는 영도자 암무와 판관 나하루와의 전투이다(KTU 1.2=CTA II).⁴²⁾ 무어의 해석에 따르면 CTA II는 12월과 2월 사이의 겨울과 관련되어 있는데, 원래 시리아 해변가의 겨울은 온화하지만, 바다를 통한 무역과 어업에 종사하던 우가릿의 주민들에게는 거친 파도 때문에 항해할 수 없는 힘든 시기였다. 따라서 우가릿 사람들은 12월-2월을 바람과 구름과 천둥의 신 바알루와 적대적인 바다 간의 폭력적인 충돌의 시기로 해석했

in *Essays and Studies Presented to William Ridgeway on His Sixtieth Birthday, 6 August, 1913*, ed. Edmund Crosby Quigg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3), 153-66; Martin P. Nilsson, "Die eleusinischen Gottheiten", *Archiv für Religionswissenschaft* 32 (1935), 79-141, 특히 106-14. 가을이나 겨울을 데메테르의 슬픈 계절로 보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경우: Timothy Gantz, *Early Greek Myth: A Guide to Literary and Artistic Sources*, vol. 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63-70. 앞의 학자들이 각각 다른 계절을 데메테르의 슬픈 계절로 언급하는 까닭은 그들이 가진 연구자료 대본의 지역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Ki-Min Bang, "A Missing Key to Understanding Psalm 46: Revisiting the Chaoskampf", *Conversations with the Biblical World* 37 (2017), 68-89, 특히 76-77.

- 41) 무어는 바알루 신화 속에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현상과 계절에 따라 진행되는 제의에 대한 많은 암시나 언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영향으로 바알루 신화가 일종의 제의 달력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어는 바알루 신화의 토관 순서를 다소 바꾸어 배열한다. CTA III-I-II-IV-V-VI가 무어의 제안을 따른 배열인데, 그의 배열 순서는 적은 수정으로 바알루 신화에서 계절 패턴을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학자들(John Day, Mitchell Dahood)도 있지만, 무어의 견해는 여러 부분에서 학계의 기본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참조: Johannes C. de Moor, *The Seasonal Pattern in the Ugaritic Myth of Ba'alu, According to the Version of Ilmilku* (Kevelaer/Neukirchen-Vluyn: Butzon & Bercker, 1971), 특히 245-249; 그의 비평과 관련하여: John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6; Mitchell Dahood, "Review: *The Seasonal Pattern in the Ugaritic Myth of Ba'alu, According to the Version of Ilmilku*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16), by Johannes C. de Moor", *Orientalia* 41 (1972), 137-138; Bang, *윗글*, 75-76.
- 42) Prince Yammu와 Judge Naharu에 대한 한글 음역 및 번역은 ANET-K(2016)의 바알루 신화 번역을 따른다.

던 것으로 보인다.⁴³⁾ 바알루의 두 번째 전투는 모투와 관련된 것이다. 건조한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강하기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죽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은 죽음의 신인 모투(Motu)가 폭풍을 일으키는 신인 바알루를 무찌르고 일시적인 승리(KTU 1.5-1.6=CIA V-VI)를 거둔 계절로 이해된다. 그러나 바알루는 부활하여 모투와 싸워 승리하고, 만신전의 신들은 바알루의 승리와 즉위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다(KTU 1.6=CIA VI). 바알루의 승리와 즉위는 가을에 다시 비가 오는 것과 연관된다.

구약성서 안의 혼돈과의 전투(Chaoskampf 혹은 the combat myth) 모티브에서는 바알루 신화와 같은 수준의 명시적인 계절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알루 신화와 일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원래 혼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티브(Chaoskampf)나 하나님이 왕이시다/왕이 되신다는 선포는 바벨로니아의 가을축제인 아키투 축제에서 불렀던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Babylonian Story of Creation)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혼돈과의 전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점이 된 궁켈의 첫 저작인 *Die Schö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1895)⁴⁴⁾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혼돈, 특히 티아맛과의 전투로 보고 창조 직전에 하나님의 혼돈과의 싸움이 있었음을 말하였다. 기센 대학에서 궁켈의 학생으로 있기도 했던 모빙켈(Mowinckel)은 궁켈의 연구를 발전시켜 혼돈과의 싸움이 가을 축제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⁴⁵⁾ 그의 가을축제 이론에서 야훼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혼돈과의 싸움(Chaoskampf)과 승리,

43) Moor, 윗글, 140-141, 246.

44) Hermann Gunkel, *Schö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 eine relig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über Gen. 1 und Ap. Joh. 1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895); Hermann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trans. by K. William Whitney Jr. (Grand Rapids: Eerdmans, 2006).

45) 고대 이스라엘의 가을 축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편연구(Psalmenstudien) 2권(1922)이 근자에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Sigmund Mowinckel, *Psalms Studies*, Vol. 1 (Atlanta: SBL Press, 2014), 175-491.

심판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⁴⁶⁾ 승리하신 하나님은 시편 24편이 묘사하듯이 영광의 왕으로서 성전 문을 통하여 입장하고⁴⁷⁾ 하나님의 주권을 재확인하게 된다.⁴⁸⁾ 이러한 모빙켈의 야훼 즉위시 이론은 바빌로니아의 마르둑의 승리와 즉위를 기념하는 신년축제인 아키투 축제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모빙켈의 이론에 결정적인 흠과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시편연구 2권을 작성할 당시 1928년부터 발굴되어 해독된 우가릿 문서를 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궁켈과 모빙켈은 구약성서 안의 혼돈과의 싸움 모티프가 바빌로니아 신화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지중해 지역과 기후가 달라서 가을의 농경적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⁴⁹⁾ 시리아 지역의 바알루 신화는 히브리 성서의 혼돈과의 싸움(Chaoskampf)이나 야훼 즉위시가 계절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며, 히브리 성서 속 가을 축제, 즉 초막절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바알루 신화나 아키투 축제에 낭송되었던 바빌로니아 창조 이야기(Babylonian Story of Creation/Enuma Elish)는 보여주지 않는 히브리 성서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야훼 하나님의 일시적 패배 개념은 구약성서에 나타나

46) Mowinckel, *윗글*, 224-257.

47) *윗글*, 283-303.

48) *윗글*, 323-363.

49) 예컨대 제콥슨(Thorkild Jacobsen)은 마르둑-티아맛 총돌이 서셈족으로부터 유래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에누마 엘리쉬에서 신은 반란을 일으킨 바다를 제압하기 위하여 폭풍우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 지역은 이러한 배경에 적합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훨씬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Thorkild Jacobsen,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amat", *JAOS* 88 (1968), 104-108. 이와 비슷한 견해는 램버트(W. G. Lambert)에서도 찾을 수 있다. 램버트는 마르둑과 티아맛의 총돌에 관한 바빌로니아 신화가 아모리족(Amorite)으로부터 기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빌로니아의 아모리 1왕조(the Amorite 1st dynasty of Babylon)가 세워졌을 때 아모리족이 폭풍신의 바다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W. G. Lambert, "A New Look at the Babylonian Background of Genesis", *JTS* 16 (1965), 295-296. 그러나 현존하는 에누마 엘리쉬가 기록된 연대는 대략 1100 B.C.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대의 큰 차이를 고려하면 아모리 1왕조의 전승이 에누마 엘리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주었을 수 있겠다. 참조: John Day, *윗글*, 11-12.

지 않는다.⁵⁰⁾ 구약성서에서 야훼 하나님은 패배하거나 무능력한 시기 없이, 계절의 흐름을 매년 반복할 수 있도록 창조질서를 보존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뭄이 메마른 여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어서, 무더운 여름을 이용하여 과일나무들이 달고 맛있는 특상품의 포도가 익게 하여 거두게 하시고, 가을이 오게 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예: 창 8:22[J]; 창 9:8-17[P]). 시편 126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온의 운명을, 달리 말해 농업적 배경에서 계절을 건기에서 우기로 바꾸어 달라는 간청을 드리는 것은 계절의 흐름을 매년 반복하시며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신앙 고백적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1) 본문 비평적 결론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의 차이에 대해 재고찰해보기로 한다. 시편 126편은 전통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한 노래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을 위한 노래였

50) 하나님의 패배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구약성서 내에 소개되기도 한다. 베이토(Bernard Batto)에 따르면 구약성서 내에 주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드러난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야훼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반면, 시편 44편 23절(MT, 24절)에서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개역개정)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깨어 도와달라는 간청은 시편 7편 6절(MT, 7절), 35편 23절, 59편 4-5절(MT, 5-6절)에서도 나타난다. 성서 속의 이러한 상반된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견해는 베이토의 것으로, 베이토가 제안하는 주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력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베이토가 제시하는 근거로 먼저, 고대 근동 문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잠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만신전의 최고 신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마저도 창조 이후 혹은 모든 것의 질서를 만든 이후에야 가능했다. 구약성서에서 한 예를 찾아보자면, 창세기 1장-2장 4절까지의 제사장 자료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셨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잠자는 하나님에 대한 모티브는 하나님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잠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 뿐 하나님을 부르며 깨우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분이라는 신뢰를 근거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참조: Bernard F. Batto, “The Sleeping God: an Ancient Near Eastern Motif of Divine Sovereignty”, *Biblica* 68 (1987), 153-177.

는지 논쟁을 초래해왔다. 히브리어 본문(MT)을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시편 126편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을 위한 노래였음을 뒷받침하며, 이것이 본래의 시편 126편의 삶의 자리라고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시편 126편이 초막절을 전후로 이스라엘의 계절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기에서 새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우기로의 전환을 위한 기도와 관련이 깊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시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해석은 다양한 본문의 내적, 외적 증거들의 뒷받침을 받는다.

그런데, 필자의 결론이 옳다고 전제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그리스어 본문이 보여주는 다른 읽기와 해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시온의 계절을 바꾸어 달리는 간척이 포로를 귀환시켜 달라고 하는 간척으로 바뀌게 된 것에는 분명히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포로를 귀환시켜 달라고 하는 독법은 주로 그리스어 시편 번역에 기반한 것으로서, 4세기의 바티칸 사본 등의 그리스어 사본이 레닌그라텐시스 사본에 비해 600년 이상 앞서긴 하지만, 그리스어 번역자들의 히브리어 실력이 부족하여 잘못 번역했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⁵¹⁾ 번역과정에서의 실수가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을 수 있다. 둘째로, 시편 126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는 중에 본래의 배경이 잊히고 다른 중요한 역사적 경험(예를 들어, 디아스포라로서 본향을 떠나있는 설움)과 재결합되기도 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⁵²⁾ 셋째로,

51) 칠십인역에서 중요한 부분인 오경에 대한 번역자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 가운데 그의 히브리대 박사 논문을 요약해 출판한 논문에서 김하연은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며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에 더 능숙한 사람이었음을 주장하였다. 번역자들의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 결핍은 어려운 하팍스 레고메나(Hapax Legomena) 번역에서만이나 아니라 적게 출현하는 어려운 낱말이나 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 관용구, 문장구조이해, 어형 분해, 중자음 동사(geminate verbs)나 약변화 동사 등의 어형변화, 어근, 어원 등의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김하연, "칠십인역 오경 번역자들의 히브리어 이해 수준에 관한 소고", 『이스라엘연구』 제2권 1호(2010년 12월), 26-46. 번역 실수의 가능성은 70인역 시편 번역자가 2절의 두 접두형 동사를 자의적으로 하나는 단순과거(aorist)로 다른 하나는 미래(future)로 번역하는 서툰 모습 등을 볼 때 충분하다.

52) 할로와 윌슨은 고대 근동 문서들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관찰하였다. 특히 윌슨의 관찰에 따르면, 수메르 성전 찬양 모음집에서 사르곤 왕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암시가 억제됨으로써 전혀 다른 역사적인 배경에서 반복된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대에서 변형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할로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오랜 정경

히브리어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와 운명(계절)을 돌리실 때의 소리가 비슷하여서 이러한 과정은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

2) 시편 126편을 초막절 제의 시편으로 다시 읽기

앞서 논의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히 시편 126편의 초막절 순례와의 연관성, 이스라엘의 계절과 농업,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가진 계절과 관련된 신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볼 때 시편 126편을 초막절 시기의 계절 변화와 관련한 시편으로 읽는 방법은 전통적인 연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점들을 밝히는데 공헌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시편 126편의 새로운 읽기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먼저 1절 상반절의 시온의 회복과 관련한 구절(“בְּשׁוּב יְהוָה אֶת־שִׁיבַת צִיּוֹן”)은 앞서 언급한 디트리히의 제안처럼 이 반복되는 과거(recurring past)와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다. 이 견해를 따라 “야훼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마다”로 직역할 수 있는데,⁵³⁾ 시편 126편이 보여주는 명백한 계절 변화에 대한 암시(예컨대 4절의 와디)와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기원(5-6절) 등을 볼 때 이 운명의 회복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관련된 초막절 제의 기간 전후로 있었던 계절의 변화를 암시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절변화 이해를 바탕으로 1절 상반절은 “야훼께서 시온의 계절을 건기에서 우기로 회복시켜 주실 때마다” 혹은 “야훼께서 시온의 계절을 바꾸어 주실 때마다”로 의역될 수 있다. 1절 하반절에서는 보통 완료(Perfect) 혹은 과거로 이해되는 접미

화(canonization) 과정에서 이러한 승화(sublimation)나 이데올로기의 갱신을 거부하면 정경으로부터 사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참조: William W. Hallo, “Toward a History of Sumerian Literature”, *Sumerological Studies in honor of Thorkild Jacobsen* (University of Chicago Assyriological Studies 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194; Gerald Wilson, *룻*(1985), 22.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본 논문의 바탕이 된 필자의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고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성전도 회복되지 않은 초기 귀환의 시기에 빠른 회복을 구하는 기도였다가 계절적, 제의적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시편 126편에 계절 및 초막절과의 관련성이 첫 연구 당시보다 크다는 것이 발견되어 결론이 뒤 바뀌었고 새 결론이 더 설득력이 높은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53) Dietrich, *룻*, 17-18.

형 동사가 사용되어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1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야훼께서 시온의 계절을 바꾸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다”는 과거 초막절의 회상이 된다.

2절과 3절에서 시편기자는 회상으로부터 현재 시점(미완료)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초막절이 기쁨이 넘치는 상태임을 묘사해준다. 이 기쁨은 마침 느헤미야 8장의 초막절 준수 기사에서 진술된 것이다.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 낭독된 율법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였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및 레위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하고 또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것을 마시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9-10, 개역개정)라고 말하였다. 그 날이 하나님 야훼의 절기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야 하고 먹고 기뻐해야 한다는 명령이 담긴 느헤미야 초막절 기사는 가을 축제 기간이 기뻐하는 분위기를 증언하는 역사서 속의 보충자료가 된다. 이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실 때,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게 된다(미완료). 이방 민족들은 말하길(미완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완료)”하고(2절), 하나님의 백성 역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완료) 큰일 때문에 기뻐한다(ἠγαλλῶσθε+능동분사, 계속적 용법).

4절에서 백성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우기로 계절을 돌리신 것처럼 야훼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남방의 마른 시내들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한다. 파스버그의 긴 명령형에 관한 연구가 밝히듯이 이 간청은 제 3자가 아니라 간청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⁵⁴⁾ 따라서 포로들과 같은 3자를 위한 중보 기도도 아니었을 것이다. 기도를 올리는 대표 기도자 또는 회중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비의 회복이라면 긴 명령형의 용법에 잘 맞는다.

54) 슈무엘 파스버그, 원글.

5절과 6절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이다. 전통적으로는 5절과 6절의 접두형 동사는 미완료로서 밝은 미래를 말하는 표현일 것이라고 이해되었으나, 아인-바브, 아인-요드, 라메드-헤와 히필 동사를 제외하고는 긴 형태(미완료)와 짧은 형태(단순과거[Preterite], 저씨브)가 형태론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4절의 간청을 이어받는 저씨브를 활용한 간청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 설득력이 높다. 따라서 필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저씨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소서'(저씨브)로 번역을 제안한다.

3) 제언

이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는 지중해 동부지역에 위치한 레반트 지역의 기후적 요소를 구약 연구에 반영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 전통적인 서구권의 구약 연구는 구속사와 역사적 배경에만 주로 관심을 가진 나머지⁵⁵⁾ 고대 근동 제국의 역사 자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이스라엘 땅이 속한 지중해 연안 지역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기후적, 생태적 컨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이것은 필자가 보는 전통적인 역사비평 중심의 서구권의 구약 연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인데, 필자의 논문은 고대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컨텍스트 역시 구약성서 연구에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후속 연구⁵⁶⁾를 위한

55) 20세기 서구 성서학이 지나치게 역사 중심으로 흘러갔던 문제에 대해서는 시어도어 히버트(Theodore Hiebert)가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히버트가 예로 드는 대표적 사례는 게르하르트 폰 라드(Gerhard von Rad), 어니스트 라이트(G. Ernest Wright) 등이 있으며 인간 중심의 구속사를 다루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Theodore Hiebert, *The Yahwist's Landscape: Nature and Religion in Early Israe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22.

56) 본 논문 투고 이후에 필자의 후속 연구로 기획된 연구가 여러 이유로 본 논문보다 먼저 출판되었다. 후속 논문은 지중해 지역의 기후 및 지리, 지질학적 배경이해가 구약 연구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심의 연구를 담고 있다. 한편상으로 중앙산지 서편과 동편의 기후 차이 및 유대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필 수 있는 이유와 이사야의 종말론적 해석, 시편 126편과 초막절 준수, 율달,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의 배경, 갈멜산 위의 엘리야, 아모스와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아모스의 지진(기원전 750년경, 진도 7.8-8.2로 추정) 등을 다룬다.

좋은 자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6. 참고문헌

-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제39호 (2016년 10월), 148-159.
- _____,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사”, 「구약논단」 제21권 1호 통권 55집 (2015년 3월), 213-243.
- 김영진, “여로보암의 종교 개혁과 윤달 (왕상 12:31-33)”,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80-90.
-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구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성서마당」 신창간13호 (2007년), 62-71.
- 김하연, “칠십인역 오경 번역자들의 히브리어 이해 수준에 관한 소고”, 「이스라엘연구」 제2권 1호 (2010년 12월), 26-46.
- 박동현, 「순례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문희석 편) (신학총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81).
- 방기민, “지중해 배경에서 히브리 성서 읽기”, 「지중해지역연구」 제21권 1호 (2019년 2월), 77-101.
- _____, “시편 15편 연구와 성서번역”, 「로기아총서」 7권 (KAATS우수논문시리즈; 서울: 한들출판사, 2009년 8월), 7-32.
- 배희숙,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주술' 유형과 그 기능-엘리아와 엘리사의 '기적사화'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 21권 1호 통권 55집 (2015년 3월), 60-92.
- 슈무엘 파스버그,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일반 명령형과 긴 명령형”,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히브리어-한글 번역 글모

방기민, “지중해 배경에서 히브리 성서 읽기”, 「지중해지역연구」 제21권 1호 (2019년 2월), 77-101.

- 음(박미섭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1999), 86-97. 원제 Fassberg, S. E., “The Lengthened Imperative הִצְטַו and the Regular Imperative צַו in Biblical Hebrew,” M. Bar-Asher (Ed.) *Studies in Language II – Hebrew Through the Ages in Memory of Shoshanna Bahat* (Jerusalem: Academy of Hebrew Language, 1997), 71-77 (in Hebrew).
- 아비 후르비츠,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본질 및 특징”, 「성서 시대와 성서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연구: 히브리어-한글 번역 글모음」(박미섭 옮김), (서울: 한들출판사, 1999), 136-155. 원제 Hurvitz, Avi, “Historical Linguistics and the Hebrew Bible-The Formation and Emergence of Late Biblical Hebrew,” M. Bar-Asher (Ed.) *Studies in Language II-Hebrew Through the Ages in Memory of Shoshanna Bahat* (Jerusalem: Academy of Hebrew Language, 1997), 15-28 (in Hebrew).
- 유윤중, “엘 아마르나 텍스트에 비추어 본 북서 셈어의 동사 체계-안손 레이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4집 (2003년 4월), 173-195.
- _____, “시편의 최근 연구동향”, 「구약논단」 제15권 2호 통권 32집 (2009년 6월), 30-62.
- 임미영, “구약성서시대 문화 이해를 통한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구약논단」 제24권 제3호 통권 69집 (2018년 9월), 82-106.
-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성경원문연구」 제38호 (2016년 4월), 97-118.
-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년 1월), 67-87.
- _____, “원문에 대한 수사학적 이해가 없다면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한 사례: 히브리 성서의 시편에서 사용된 접두형 동사의 번역의 경우”, 「수사학」 9집 (2008년 9월), 271-298.
- Abegg, Martin G., Peter W. Flint, and Eugene Charles Ulrich (eds), *The Dead Sea Scrolls Bible: The Oldest Known Bible* (San Francisco: Harp-

- er San Francisco, 1999).
- Aharoni, Yohanan,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by Rainey, Anson F.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 Alter, Robert, *The Book of Psalm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2007).
- Anderson, Arnold. A., *The Book of Psalms* (London: Oliphants, 1972).
- Bang, Ki-Min, "A Missing Key to Understanding Psalm 46: Revisiting the Chaoskampf", *Conversations with the Biblical World* 37 (2017), 68-89.
- Batto, Bernard F., "The Sleeping God: an Ancient Near Eastern Motif of Divine Sovereignty", *Biblica* 68 (1987), 153-177.
- Beyerlin, Walter, *We Are Like Dreamers: Studies in Psalm 126* (Edinburgh: T&T Clark, 1982).
- Burkert, Walter, *Greek Religion: Archaic and Classical*, Trans. by John Raffan (Oxford: Basil Blackwell, 1985).
- Cook, John A., *Time and the Biblical Hebrew Verb: the Expression of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2012).
- Coote, Robert B.,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1).
- Cornford, F. M., "The ἘΠΙΤΑΞΙΑΙ and the Eleusinian Mysteries", in *Essays and Studies Presented to William Ridgeway on His Sixtieth Birthday, 6 August, 1913*, ed. Edmund Crosby Quigg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3), 153-66.
- Cross, Frank Moore and David Noel Freedman, *Early Hebrew Orthography: A Study of the Epigraphic Evidence* (American Oriental Series 36;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2).
- Crow, Loren D., *The Songs of Ascents (Psalms 120-134): Their Place in Israelite History and Religion*, (Atlanta: Scholars, 1996).

- Dahood, Mitchell, *Psalms III: 101-150* (AB 17A; Garden City: Doubleday, 1966).
- _____, “Review: *The Seasonal Pattern in the Ugaritic Myth of Ba’alu, According to the Version of Ilmilku* (Alter Orient und Altes Testament 16), by Johannes C. de Moor”, *Orientalia* 41 (1972), 137-138.
- Day, John,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Dietrich, Ernst Ludwig, *Shuv shevut: Die endzeitliche Wiederherstellung bei den Propheten* (BZAW 40; Giessen: A. Töpelmann, 1925)
- Elbogen, Ismar, *Jewish Liturgy: A Comprehensive Histo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3).
- Fitzmyer, Joseph A., *The Aramaic Inscriptions of Sefir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5).
- Gantz, Timothy, *Early Greek Myth: A Guide to Literary and Artistic Sources*, vol. 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63-70.
- Gerstenberger, Erhard,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Eerdmans, 2001).
- Glueck, Nelson, *Rivers in the Desert: A History of the Negev* (New York: Farrar, Straus and Cudahy, 1959).
- Goulder, Michael D., *The Psalms of the Return: Book V, Psalms 107-15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8).
- _____, “Songs of Ascents and Nehemiah”, *JSOT* 75 (1997), 43-58.
- Gunkel, Hermann, *Introduction to Psalms: the Genres of the Religious Lyrics of Israel* (Mercer Library of Biblical studies;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trans. by Whitney Jr.,

- K. William, (Grand Rapids: Eerdmans, 2006).
- Hallo, William W., "Toward a History of Sumerian Literature", *Sumerological Studies in honor of Thorkild Jacobsen* (University of Chicago Assyriological Studies 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181-203.
- Hiebert, Theodore, *The Yahwist's Landscape: Nature and Religion in Early Israe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Hossfeld, Frank-Lothar, and Erich Zenger, *Psalms 3: A Commentary on Psalms 101-150* (Minneapolis: Fortress, 2011).
- Idelsohn, A. Z., *Jewish Liturg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H. Holt and Co, 1932).
- Jacobsen, Thorkild, "The Battle between Marduk and Tiamat", *JAOS* 88 (1968), 104-108.
- Joüon, Paul,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14;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1).
- Keet, Cuthbert C., *A Study of the Psalms of Ascent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upon Psalms CXX to CXXXIV* (London: the Mitre, 1969).
- Kim, Sung-Soo, "Reading the Songs of Ascents (Psalms 120-134) in contex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Luther Seminary, 2004).
- Knowles, Melody D., *Centrality Practiced: Jerusalem in the Religious Practice of Yehud and the Diaspora in the Persian Period* (Leiden: Brill, 2006).
- Kraus, Hans-Joachim, *Psalms 60-150: A Commentary*, trans. by Hilton C. Oswald (Minneapolis: Augsburg, 1989).
- Kutscher, Edward Yechezkel,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Magnes, 1982).
- Lambert, W. G., "A New Look at the Babylonian Background of Genesis", *JTS* 16 (1965), 287-300.
- Millard, Matthias, *Die Komposition des Psalters: Ein formgeschichtlicher An-*

- satz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94).
- Mitchell, David, *The Message of the Psalter: An Eschatological Programme in the Book of Psalm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7).
- Moor, Johannes C. de, *The Seasonal Pattern in the Ugaritic Myth of Ba'alu, According to the Version of Ilimilku* (Kevelaer/Neukirchen-Vluyn: Butzon & Bercker, 1971).
- Mowinckel, Sigmund, *Psalms Studies*, Vol. 1 (Atlanta: SBL Press, 2014).
- Nilsson, Martin P., "Die eleusinischen Gottheiten", *Archiv für Religionswissenschaft* 32 (1935), 79-141.
- Rainey, Anson F., "The Ancient Hebrew Prefix Conjugation in the Light of Amarnah Canaanite", *Hebrew Studies* 27 (1986), 4-19.
- Rendsburg Gary, *Linguistic Evidence for the Northern Origin of Selected Psalms* (Atlanta: Scholars, 1990).
- Ruiz, Eleuterio R., "El silencio en el primer libro del salterio (Salmos 1-41): primera parte", *Revista biblica* 67 (2005), 31-83.
- Sáenz-Badillos, Angel,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trans. by J. F. Elwol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Seow, Choon Leong, "Linguistic Evidence and the Dating of Qoheleth", *JBL* 115 (1996): 643-666.
- Seybold, Klaus, *Die Wallfahrtspsalmen: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von Psalm 120-134*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_____, "Die Redaktion der Wallfahrtspsalmen", *ZAW* 91 (1979), 247-268.
- Viviers, Hendrik, "The Coherence of the ma' alôṯ Psalms (Pss 120-134)", *ZAW* 106 (1994), 275-289.
- Wilson, Gerald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Chico: Scholars, 1985).
- _____, "The Use of Royal Psalms at the "seams" of the Hebrew Psalter", *JSOT* 35 (1986), 85-94.

검색어

시편 126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

초막절

계절

건기와 우기

Reading Psalm 126 in the Background of the Feast of Booths

Ki-Min Bang

Graduate Student at the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The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Th.M., Ph.D. Candid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reading of Psalm 126 as a prayer of the Feast of Booths a fall festival in the ancient Near East, that petitions God for rain and an abundant harvest. Because the Feast of Booths takes place between the dry and rainy seasons, it is probable that the ancient Israelites offered this prayer on this holiday as a way of bidding for a smooth transition between the seasons.

For the purpose, this paper (1) explores the history of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26, and offers a conventional translation and a reading of the Psalm, (2) discusses several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collection of the Songs of Ascent (Pss 120-134), (3) examines its association with pilgrimage and autumn, or the beginning of the rainy season. Finally, based on the preceding analysis, this paper attempts a reading of Psalm 126 as a song for the Feast of Booths liturgy.

www.kci.go.kr

The collection of the Songs of Ascent has philological, formulaic, and thematic evidence for its designation as Pilgrim Songs composed during the Persian period, and some scholars find additional allusions to the Feast of Booths within the collection. The seasonal and climatic pattern of the Levant was vital to the agriculture and religion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e.g., the Demeter myth and the Ba'alu cycle). Psalm 126 offers a number of images that are related to the climatic and agricultural pattern of the region. These images include: the invocation of Negev wadi's flowing waters (vs. 4), the farmers' sowing seeds in expectation of an abundant harvest (vss. 5-6), and, less directly, God's restoration of fortunes (or seasons) (vss. 1, 4) and the feast of joy and gladness (vss. 2-3) that recalls the observance of the Feast of Booths in Nehemiah 8, and so on.

The reading suggested here has many advantages over the translations and readings that have previously been suggested. First, this reading explains the trajectory of the textual changes of Psalm 126 through time. Second, this reading can explain the complexity of the verbal usages in verses 1-4. Third, this reading enables the reader to understand how the Israelites used Biblical texts to engage in the climatic pattern of the ancient Israel.

Keywords

Psalm 126

Songs of Ascent

Pilgrim Songs

the Feast of Booths

season

rainy and dry seasons

- 투고일: 2018년 11월 2일
- 심사일: 2019년 1월 24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3일

www.kci.go.kr